

# 본격 미 대선 경계 구간



Fixed Income Strategist

안재균

(02) 3772-1298

✉ jk.ahn@shinhan.com

## 공화당 스윙 기대 점증 속 금리 상승, 강 달러, 가상화폐 상승 전개

월초 낮았던 국내외 금리가 10월말로 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. 3.7%에 가까웠던 미국 국채 10년은 4.2% 근처까지 올랐고, 2.9%에 머물던 국고 10년은 다시 3.1%대를 상회한다. 4bp 이내로 좁혀졌던 미국 2/10년 스프레드는 17bp로 재확대됐고, 국고 3/10년 스프레드는 15bp 전후를 유지 중이다. 예상보다 강했던 미국 고용상황 확인으로 과도했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조정됐다. 2.8%대까지 낮아졌던 2025년말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3.4%까지 상향됐다. 그러나 이후 장기물 중심 금리 상승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재부각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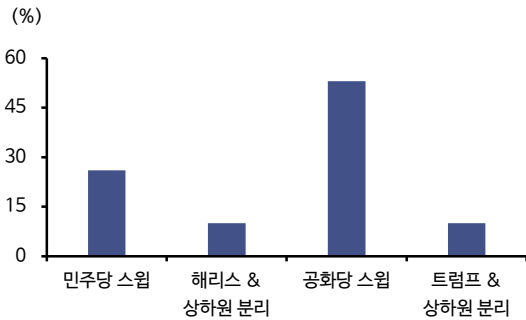
월초 GS에서 시행하는 월가 매니저 대상 서베이에서 미 대선 이슈 중 가장 큰 충격을 줄 사건은 공화당 스윙(53%)였다. 9월말까지만 해도 주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승리 전망은 44%로 47%의 민주당에 뒤처졌다. 지금은 민주당 승리 전망이 46.9, 공화당 승리는 45.7%이다. 민주당은 정체된 반면 공화당이 약진하는 모습이다. 더불어 트럼프가 주요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. 공화당 스윙 시 시장 예상 반응은 주가 상승과 하락이 24% 내외로 비슷하고 금리 상승, 강 달러, 가상화폐 상승 순서이다. 주가는 엇갈린 예상을 갖고 있지만 금리, 달러 및 가상화폐 움직임 전망은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한다. 트럼프 당선 포함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부각됐고, 금리 상승, 달러 강세, 가상화폐 상승이 전개된 것이다.

## 이번 대선 선반영 결과는 금리 상승, 대선 이후 저가 매수 진입

폴리마켓처럼 대선 결과에 돈을 걸고 베팅하는 사이트와 실제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. 폴리마켓 기준으로 8~9월말까지 트럼프와 해리스는 박빙이었지만 10월 이후 트럼프 64%, 해리스 36%으로 격차 28%p로 벌어졌다. 반면 FiveThirtyEight 기준 여론조사에서는 양 후보의 격차가 1.8%p로 줄었지만 해리스가 아직 우위에 있다. 여러 방면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약진하면서 유리한 전망들이 고개를 들지만 특정 후보의 승리를 점치긴 어렵다. 현재의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나치게 외면당했던 측면의 되돌림 차원 해석이 옳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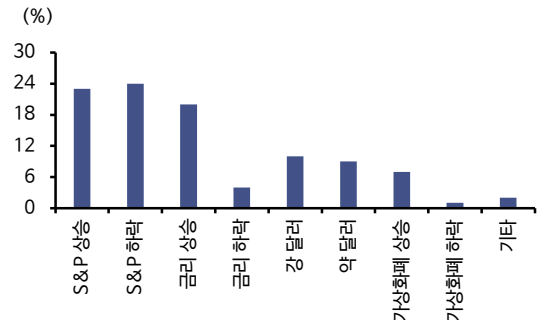
한국은 채권시장보다 외환시장이 좀 더 민감한 모습이다. 10월 원달러 환율이 50원 가량 상승했는데 2016년 동기간에는 30원 내외 상승이었다. 2016년과 달리 한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됐고, 트럼프 당선 시 약 달러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. 2016년 대비 트럼프 당선을 선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2016년 대선 결과 확인 후 금리 및 환율 급등세 출현 가능성은 낮다. 올해 대선은 불확실성이 높고 재정적자 우려로 금리 상승이 선반영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선 이후 저가 매수 진입 전략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.

### GS 10월 서베이: 가장 큰 충격을 줄 대선 이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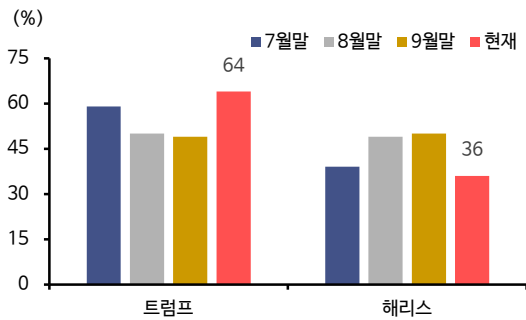
자료: GS, 신한투자증권

### GS 10월 서베이: 공화당 스윙 시 예상 움직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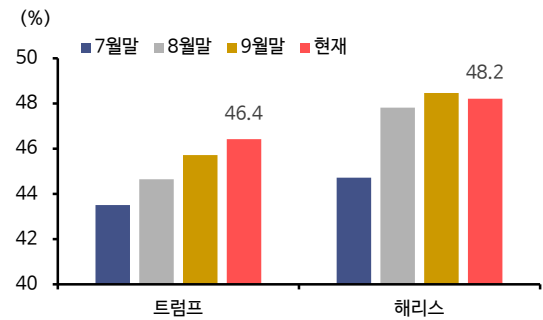
자료: GS, 신한투자증권

### 대선 결과 베팅 사이트 내 트럼프 승리 확률 높음



자료: 폴리마켓, 신한투자증권

### 실제 여론조사 격차 축소에도 아직 해리스가 우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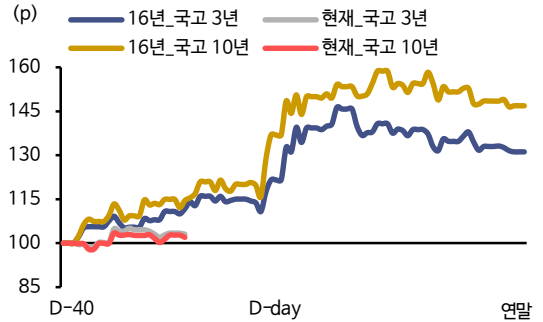
자료: FiveThirtyEight, 신한투자증권

### 원화 약세 및 수입물가 상승이 가장 큰 우려



자료: 한국은행, 신한투자증권

### 16년과 비교 시 미 대선 영향이 낮았던 채권시장



자료: 인포맥스, 신한투자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안재균).
- ◆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,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.